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27호

"인권 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재발방지 토론회도 개최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스포츠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비판

박혜민 MBN 기자

'손웅정 논란과 아동 인권' 문화스포츠단체 토론회

"스포츠아카데미 관리 사각...아동학대 등 당국서 감시를"

배시은 경향신문 기자

'마음에 안 든다' 등 이유로 폭언·폭행 일삼아[그해 오늘]

"그들의 죄를 밝혀줘"...22살 운동선수의 죽음, 케케묵은 '인권' 끄집어내다

이재은 이데일리 기자

<뉴스민>에서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최속현 선수 사망 이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살폈다.

- 4주기 故 최속현 아버지, "윤리센터 결정 무시 못하게 제도바꿔야"
- 최속현 이후 스포츠윤리센터 4년, 징계요청 이행율은 절반도 못 미쳐

천용길 뉴스민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 엄중한 수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최근 손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3월 훈련 중 손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는 아동들에게 엎드려뺨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를 가격하였으며 이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과 폭언이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계의 폭력 종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손축구아카데미의 지도자들은 해명문을 통해 코치와 선수 간에 선착순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반복된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에서의 가해자들의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인권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아동들과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지도자는 결코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 어찌 이들이 체벌을 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내기나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더욱 분노스러운 지점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스포츠 폭력에서 지도자들이 ‘사랑’과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훈련 과정에서 쌓아온 친밀감 때문에, 많은 스포츠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폭력에 노출되곤 한다. 다른 사설 축구 아카데미에서 비슷한 아동학대가 없으리란 법이 없다. ‘손흥민 신화’에 가려,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아동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스포츠 폭력을 묵묵히 참고 있을지 모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어린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축구를 즐길 권리가 있다. 축구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란 이유로, 아동들이 크고 작은 폭력을 감당해야하는 문화와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손축구아카데미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관계당국은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하나. 대한축구협회 및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설 축구 아카데미 내 스포츠 폭력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라!

2024. 7. 1.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스포츠 폭력" ... 시민단체, 손웅정 비판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손웅정 감독 등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을 향해 "인권 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1일)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스포츠계 폭력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랑과 훈육을 핑계로 이뤄지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감독 측은 지난 3월 해외 전지훈련 도중 발생한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욕설 및 체벌 등에 대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그동안 반복된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 가해자들의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아동들과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지도자는 결코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며 "많은 스포츠 폭력 사건에서 지도자들이 '사랑'과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SON축구아카데미에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지원 대책 마련을, 관계 당국에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레(4일) 서울 마포구 스페이스엠에서 '손축구아카데미 스포츠 폭력 사건을 통해 돌아본 아동·청소년 스포츠 인권의 현 주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유소년 선수 육성 시스템과 이번 사태를 둘러싼 문화·법률적 쟁점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지금도 '손흥민 신화'를 좇아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아동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스포츠 폭력을 묵묵히 참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한국 축구 국가대표인 손흥민(토트넘)의 아버지 손 감독과 아카데미 소속 지도자 2명이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감독은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아카데미 관리 사각... 아동학대 등 담국서 감시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체육계 시민단체들이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스포츠계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은 4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SON축구아카데미 스포츠 폭력 사건을 통해 돌아본 아동·청소년 스포츠 인권의 현주소'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손 감독 등 축구아카데미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측은 지난 3월 아카데미 내에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고 평소 욕설을 듣는 등 학대 행위가 있었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춘천지검은 지난 2일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처음 불러 조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정희준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집행위원은 “사건의 본질은 손 감독과 코치진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지도자가 어린아이를 때리고 폭언하는 스포츠 교육, 피와 눈물로 젖은 메달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감독이 “지도자들의 행동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없었다. 고소인 쪽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속 김종우 변호사는 “‘사랑의 매’는 아동학대가 아니냐”며 “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가 부당하다고 해도 여전히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처럼 학교 밖 체육 관련 사설 학원들이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SON축구아카데미 같은 학교 밖 클럽은 교육부 관할인 교내 운동부와 달리 사각지대”라며 “교육부가 학교 밖 아카데미까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원법에 체육 교습소 등을 포함시켜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손 감독의 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손 감독 등을 옹호하는 입장문을 낸 데 대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팀원·학부모들의 탄원서 제출 등은 일종의 패턴”이라고 말했다.

손 감독의 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은 없었다”며 “이곳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들의 죄를 밝혀줘” ...22살 운동선수의 죽음, 케케묵은 ‘인권’ 끄집어내다

2020년 7월 3일 주낙경 경주시장은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가 오랜 가혹행위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선수가 몸담았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또 다른 폭행 가해자인 운동처방사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대응을 결정한 것이었다. 유망주였던 최 선수가 생을 마감하기까지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입단 전 고교생 시절부터 수년간 가혹행위

최 선수가 2020년 6월 26일 숨진 배경에는 감독과 주장 선수 등의 가혹행위에 수년간 노출된 상황이 존재했다.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할 당시 평소보다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빵 20만원어치를 먹게 하거나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3일간 굶게 하는 등 행위가 대표적이었다.

조사 결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었던 김모씨의 범행은 최 선수가 공식 입단하기 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 선수가 2016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경주시청 훈련에 참가했을 때는 체중 조절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또 같은 해 국외 전지훈련에서는 주장이었던 장모씨의 운동화로 뺨을 때리거나 장씨가 최 선수를 폭행하는 것을 묵인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장씨는 최 선수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선수를 시켜 최 선수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최 선수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팀 선수들을 모아놓은 뒤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밀치기도 했다. 당시 장씨의 폭행에 노출됐던 피해 선수들만 11명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에 입단한 뒤에도 이어졌다. 김씨는 운동처방사 안모씨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최 선수를 찾아가 협박하고 장씨와 함께 소속 선수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팀플레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를 훈련에서 배제한 뒤 동료 선수들에게 그를 따돌리라고 지시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이었다.

다음 장 계속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최 선수 외에도 소속 팀 선수들 여러 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었음에도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으며 일부 선수들을 성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선수 숨진 뒤에야 실질적 조치…주요 가해자들 중형 확정

수년간 폭력 행위에 시달리던 최 선수는 숨지기 세 달여 전 김씨를 비롯해 안씨, 장씨와 또 다른 선배 선수 김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 등의 영향력이라면 자신이 부산시청으로 이적한 뒤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하고도 용기를 낸 것이었다. 최 선수의 가족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진정을 내기도 했다. 최 선수가 숨지기 하루 전날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최 선수의 죽음으로 사건이 드러난 뒤에서야 이루어졌다. 김씨와 정씨에게는 영구제명 처분이 내려졌으며 또 다른 가해 선수 1명에게는 자격 정지가 결정됐다. 김씨 등은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 선수에게 폭행 및 폭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 못매를 맞기도 했다.

경주시체육회와 관할인 경주시에 대해서는 최 선수 측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로 특별 감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최 선수 외 다른 선수들을 폭행하고 체육회에서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4억 4000만원의 퇴직금,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대한철인3종협회가 최 선수의 사망 4개월여 전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와 협회가 선수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 입증된 셈이었다.

이후 스포츠계 안팎에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을 통합해 관리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으며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선수 6만여명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폭력 피해 전수 조사가 이뤄진 것이었다. 정치권은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른바 ‘최속헌법’)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최속헌법’은 2021년 2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가혹행위 당사자였던 김씨 등에 대한 법적 처벌도 뒤늦게나마 이뤄졌다. 최 선수를 포함한 소속팀 선수들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한 김씨와 안씨는 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감독이었던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또 다른 선배 선수 김씨에게는 징역 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4주기 故 최숙현 아버지, “윤리센터 결정 무시 못하게 제도바꿔야”



최숙현 선수가 떠난 지 4주기를 맞은 26일 아버지 최영희(59) 씨를 경북 칠곡군 모처에서 만났다. 벌써 4년이 흘렀지만, 멍멍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2시간 남짓 이야기를 하던 최 씨는 눈시울을 붉혔다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힘을 주어 말하곤 했다.

최 씨는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경주시청, 대한체육회, 연맹 이런데 하소연해도 진정을 넣으나 마나였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지금 생각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가해자 쪽에서 숙현이 동료들한테 회유, 협박, 증거인멸시도를 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라며 진정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더 막막해지는 제도를 짚었다.

그 때문에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출범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있다.

최 씨는 “체육회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숙현이 사건 때도 그랬어요. 경북체육회에서 제3자를 통해 감독하고 합의를 종용했어요. 체육회와 연맹 사이에 형성된 카르텔이 있었던 거죠. 그나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하면 골치 아플 수 있겠다는 예방 효과 정도는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윤리센터 징계 요청을 연맹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라고 말했다.

조금이나마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생각한 최 씨는 딸이 남긴 뜻을 이어갈 생각이다. 최 씨는 “희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다만, 숙현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것, 제도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 등을 이어나가는 게 제 몫이 아닐까 생각해요”라며 “장학회든, 재단이든 비인기 종목에서 묵묵히 운동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끝이 났지만, 최영희 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대한체육회, 법무부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다. 최 씨는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이 나면 배상금을 재단이나 장학회 설립에 쓸 계획이다.

제도의 문제도 언급했지만, 최 씨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꺼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숙현이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줬어요. 숙현이도 운동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하는데 까지 열심히 한 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를 한 번 제대로 들어보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참 후회가 돼요.”

최 씨는 운동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지도자들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자들이 무조건 바뀌어야 해요. 선수 때 경력, 학교 때 경력만으로 학교폭력이 있어도 지도자를 했잖아요. 이제는 연수원에서 6개월 정도 인성교육, 인권교육도 확실하게 한 후에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예우도 높여야 해요. 스포츠인들이 비참하게 살면 그게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죠.”

최 씨는 마지막으로 언론에 대한 바람도 털어냈다. “4년 전에 숙현이 사건 터지기 전에 모 언론사에 제보도 했어요. 그런데 보도가 안 됐고, 취재를 하는데도 가해자 쪽을 먼저 하니깐 바로 입막음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2주 지나고 숙현이 사건 터지고 나니깐 제보했던 언론사에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이슈가 되어야 하니깐 이해는 가지만,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최속현 이후 스포츠윤리센터 4년, 징계요청 이행율은 절반도 못 미쳐

최속현 선수가 세상을 떠나고 두 달이 지난 후 국회는 일명 최속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2020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에 있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 지원센터 등을 통합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인권침해 조사와 피해자 보호 ▲징계정보시스템 운영 ▲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스포츠윤리교육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인권감시관 제도 운영 등 5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4년간 센터 운영을 지켜본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59) 씨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속현이 사건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 초기에 운영이 잘 안 됐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 씨는 윤리센터가 지난 4년 동안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지만, 여전히 센터가 지고 있는 숙제는 있다. 지난 1월, 3개월 간의 공백 끝에 새로 선임된 이사장은 2019년 이른바 ‘매직 코리아’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센터가 조사해 요청한 징계에 대한 체육회의 이행율은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다. 만연한 인력 문제는 이곳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취임 신임 이사장 징계 이력 문제 박지영 이사장, “소송 끝에 징계 무효 결정받아”

2023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된 이후 3개월 동안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장인 이사장이 공백 상태였다. 공백 끝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17일 박지영 신임 이사장을 임명했다. 박 이사장은 수영선수 출신으로 수영연맹 부회장과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을 지내 현장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기대가 컸지만, 의문도 제기된다.

박 이사장이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벌어진 ‘매직 코리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소송을 거쳐 징계가 무효로 판정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센터는 2023년 8월부터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을 하는 선수나 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수영연맹 착오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규정에 맞지 않는 유니폼과 수영모를 지급 받았고,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유니폼엔 테이프로 덧대 ‘KOREA’를 쓰고, 수영모에도 매직으로 ‘KOR’을 적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일로 연맹 간부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당시 부회장이었던 박 이사장도 2020년 대한체육회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 이사장은 징계 후 재판을 통해 무효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이사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대한체육회하고 소송을 했다.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후보자 검증 단계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정보시스템에서 이력을 발급 받았고, 징계가 없는 걸로 검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선수나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가 없다.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징계정보시스템 운영도)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은 “징계가 무효가 됐더라도 스포츠윤리센터의 신뢰성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을 정부가 임명할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청에도 징계 이행율은 절반 못 미쳐 미국 세이프스포츠센터는 징계 불이행시 예산 지원 중단하는 권한도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한 후 이뤄지는 징계 이행율도 문제다. 센터는 조사를 마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직접 행하지 못하고 체육회 측에 요청해야 한다. 체육회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김현수 위원장은 “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체육회는 경기단체에 이를 전달한다. 대한체육회가 마음만 먹으면 1건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 실제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실을 드러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센터가 요구한 징계 249건 중 99건, 39.8%만 징계가 이뤄졌다.

센터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최근에 통계를 파악해보니 징계요청을 했을 때 처벌이 약화되거나 이행하지 않은 불이행율이 49% 정도였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권을 가질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꽤 오래했는데, 경기단체에서 징계해야한다는 판결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회장 영향력이 있으니 선수들이 신고 자체를 잘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한체육회장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게 필요한 일이다. 7월 22일 진중오 의원실하고 이 문제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공정위는 각 경기연맹,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징계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하지만 김현수 위원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손대는 일은 쉽지 않다. 결국 스포치윤리센터에 대한 신뢰,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며 “체육계가 윤리센터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통합이 필요하다. 미국의 세이프스포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2017년 자주적으로 관리, 제재를 담당하는 독립된 인권기구 세이프스포츠센터(us center for safesport)가 있다. 세이프스포츠센터는 18년 동안 미국 여자 체조 국가대표팀 팀닥터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백 명의 젊은 선수를 착취하고 성폭행한 일명 ‘래리 나사르 사건’이 2016년 세상에 알려지면서 설립됐다.

세이프스포츠센터는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조사 및 징계 요구권에 더해 징계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직에 국가 재정 지원을 중단시키는 권한이 있다.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 불이행 시에도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가해 행위를 확인하고도 피해자가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윤리센터, “기한 내 사건 처리율 90%까지 올라와” 체육시민연대, “인권침해 조사와 수사의 지향점 달라야”

전문적인 조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지난 26일 故 최속현 선수 4주기를 맞아 경북 성주군 추모공원을 찾았던 박 이사장은 “안 그래도 취임 이후 계속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에서도 조사관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사건의 기간 내 처리율이 90%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속현이 사건을 맡았던 조사관이 한 사건만 다루지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 빨리 조사해서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사건을 빠르게 조사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건 처리 속도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외부로 공개되면 피해 선수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인권적 측면을 더 중요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위원장은 “인권침해 조사와 수사는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윤리센터는 사건처리 건수를 실적으로 보는 관행이나 사건처리 기간을 업무성으로 보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 가운데 윤리센터에 접수 후 피해사실이 언론에 공표되는 등 2차 피해 문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사설] 손아카데미 인권 성찰 계기로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3089>

[삼촌설] 도마에 오른 스포츠 체벌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3042>

"팬 문화가 스포츠에 열광하게 만든다"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95>

운동과 학업을 왜 병행하나... 고교 야구 전성시대가 그림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4/07/06/OXOMCN5EGZBXLKDIRXHW26W2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익스트림 스포츠 통해 남북분단 현실 체험한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73467&code=61221111&cp=nv>

"안산서 e스포츠 페스티벌 열린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8_0002802018

'아동-스포츠재활-무용' 폭넓게 체계적으로 배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8192.html>

[스포츠 영상] 37년 만에 세계신·마후치크 "우크라이나의 이름으로!"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5206_36515.html

[김현정의 IT세상]스포츠 가치 끌어올리는 AI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1126638952552&mediaCodeNo=257&OutLnkChk=Y>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